

# '클로렐라' 농가 효자손 노릇 톡톡

### 주기적 처리 시 병해 억제효과 탁월... 경영비 절감·생산성·품질 향상 등 효능 우수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담수 녹조류 미생물인 '클로렐라'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클로렐라의 세포내에는 단백질, 미네랄, 엽록소,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기능성 식품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생물소재로서 식품산업, 의약산업, 축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농산업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클로렐라는 공나물 80%, 상추 30%, 딸기 57% 등 수량증대 효과가 있고 균핵병, 노균병, 잣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등이 76~93% 병해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로렐라 미생물 처리는 과실의 저장성을 향상시켜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클로렐라가 작물의 생장촉진, 병해억제, 생산성 향상, 저장성 증대 등 다양한 효능이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담수 녹조류 미생물인 '클로렐라'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혀짐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고 있다.

농업용 클로렐라는 배양기에서 5~7일간 배양 후 200~500배로 물과 희석하여 작물에 살포 또는 관주해 주변 생육을 촉진하고 곰팡이성 병원균

으로 발생하는 병해를 억제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

실제 익산시 황등면에서 시설상추 3,300㎡를 재배하는 최진호(42)씨는 작년에 귀농해 농업기술센터 유익한 소득작물 계장으로 부터 클로렐라 배양기술을 배워 상추 재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진호 농가는 병

이 발생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살균제를 한 번도 살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요즘 여름철에 무더위로 상추가 웃자라는 경우 클로렐라 희석배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처리해 주변 상추 유육이 두꺼워져 상품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최 씨는 주변 농가들이 자신의 하우스에 견학을 오면 클로렐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클로렐라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클로렐라를 주기적으로 처리해 주변 병 발생을 예방해 값비싼 농약(살균제)을 살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비 절감,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클로렐라는 물과 햇빛, CO2와 미량요소만 있으면 무한적으로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로 비교적 배양이 쉽고 취급이 간편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스크루가 그물에 걸려 표류중인 43급 채낚기어선을 구조원료 했다고 밝혔다.

## 오징어잡이 어선 사고 속출

### 서해안 어장 형성으로 어선 몰려... 군산해경, 주의 요구

오징어잡이 어선이 서해상으로 몰리면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5시 48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36.8km 해상에서 스크루(screw)가 그물에 걸려 표류중인 43급 채낚기어선(선장 김씨 53세, 승선원 7명)을 구조원료 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덕을 출발해 전북 서해안에서 조업하던 오징어잡이 어선은 어군(魚群)을 따라 이동하던 중 떠다니던 그물에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00급 경비함과 300급 경비함을 현장으로 보내 안전수역까지 어선을 릴레이식 예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단을 이룬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전북 서해로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어선들은 대부분 강원 동해를 비롯해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선적의 어선들로 일일 평균 5t 이상의 위관실

적을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기간 조업으로 선박사고와 해양 특성을 모른 선박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2주 사이 군산해경에 접수된 오징어잡이 어선 사고는 모두 6건(6척 44명)으로 기관고장을 비롯해 침수, 추진기장애 등 원인이 다양하다.

군산해경 임동중 경비구조과장은 "집어등(集魚燈)을 이용하는 채낚기어선은 화재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양식장과 암초가 많은 서해 특성을 모르고 조업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정비와 조업구역 위해(危害) 요소 등을 파악한 후 조업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광역구역 대형 경비함과 연안 해역 중형 경비함 등의 경비구역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 군산시립도서관 "영화보며 무더위 피해하세요"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상영 마이펫의 이중생활 등 안내

군산시립도서관은 온가족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신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5편을 선정하여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이번 상영에서는 ▲3일 '마이펫의 이중생활'을 시작으로 ▲10일 '리틀폭스' ▲17일 '플래그 더 문' ▲24일 '슈퍼배드' ▲31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도서관 속 테마영상실'을 운영하며, 이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30일에는 '소셜원작영화

를 테마로 하여 촉망받던 사업가였으나 전신마비 환자가 된 '윌'과 간병인으로서 그를 보살피며 함께 생활하는 '투이자'가 서로의 인생을 향해 차츰 들어가게 되는 사랑 이야기 '비비도 유'를 상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454-5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장현 기자

## 군산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에

### 자동심장충격기 1대 설치 운영

군산시 나운2동(동장 송천규)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서 지난 2일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환자에게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시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전기 충격으로 심장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 환자의 생명을 높여주는 장비이다.

동에서는 이번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를 평소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청사 내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인근에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모품(패드, 배터리 등)을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응급상황을 가정한 교육을 동 직원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송천규 나운2동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됐다"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 김철모 익산부시장 현장행정 "바쁘다 바빠"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2일부터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철모 익산부시장(사진)은 용안생태습지, 성당포구마을, 산림문화체험관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과장으로부터 사업장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용안생태습지 공원은 2012년에 개장되어 다양한 생태 관찰을 할 수 있는

학습장을 구비하고, 인접지에 공모사업으로 공공수마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일까지 금강동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새마을, 평화교육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장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철모 익산부시장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 뿐 아니라 기존사업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자동차·뿌리산업분야 전문가 양성

### 원광대·스마트자동차공학과·뿌리협업본부 등 업무협약

원광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과(학과장 김병삼)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뿌리협업본부(본부장 문남수)가 자동차·뿌리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최근 원광대 청의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력교류를 비롯해 산업정책, 동향, 통계 등 지식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자동차·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자동차공과에서는 학

과특성 및 실무형 인재 양성 공급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보유 장비 및 인증현황, 상용차 관련 지역산업 육성 방향을 위한 9대 핵심사업 및 인력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삼 학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 및 공급을 통해 대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